



한국IR협회

기업리서치센터 기업분석 | 2025.0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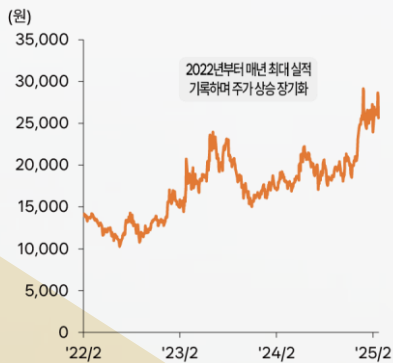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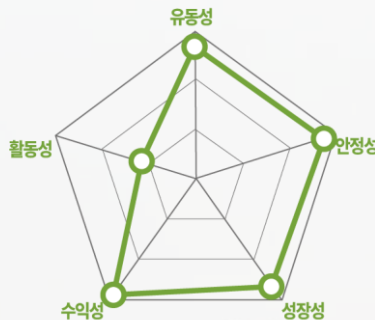
KOSDAQ | 전자와 전기제품

비트로셀 (082920)**일차전지, 방산·에너지·전력
인프라의 필수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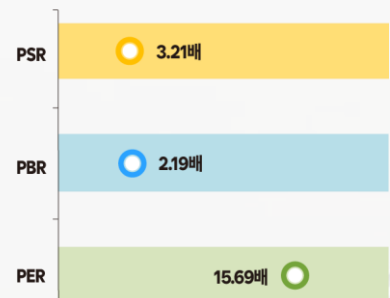
2024년 코스닥 라이징스타

체크포인트

- K-방산 글로벌화 및 무기 체계 전자화에 따른 수혜 지속. 2025년 방산용 전지 매출액은 2023년의 2.4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유도무기 및 스마트 탄약 중심으로 열전지와 앰플전지 수요 확대 본격화. 천무 무유도탄 개량 프로젝트와 이스라엘, 인도 중심의 수출 증가로 방산용 실적 가시성이 확대되고 있음
- 美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로 고온전지 수요 동반 성장 중. 동사의 고온전지는 MWD 시스템의 핵심 전력 공급원으로 고내열특수전지 시장을 선점하고 있음. 2025년 글로벌 시추 장비사로 신제품 공급이 본격화되며 2025년 고온전지 매출액은 YoY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캐시카우 바빈전지는 유럽 스마트 미터기 시장 내 점유율 1위 달성. 최근 북미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로 전력선·변압기 센서 수요가 증가하며 바빈전지의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음. 북미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 증가는 바빈전지의 수요 기반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주가 및 주요이벤트**재무지표**

주: 2023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 상 IT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3년 기준, PBR은 3Q24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IT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K-방산 글로벌화 + 무기 체계 전자화 → 방산용 일차전지 수혜 지속

방산용 일차전지 매출액은 2023년 264억원에서 2024년 495억원, 2025년 634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25년에는 전체 매출의 약 2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일차전지는 유도 미사일, 스마트 탄약, 야전 전자장비, 어뢰 등 다양한 무기 체계에서 필수적인 전력 공급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비츠로셀의 방산용 전지는 와운드 타입, 앰플전지, 열전지로 구분되며 이 중 앰플전지와 열전지가 실적 성장을 주도. 2024년 시작된 K239 천무 다연장로켓의 무유도탄 개량 프로젝트로 초소형 앰플전지 수요 증가가 본격화되었으며, 중형 앰플전지(포탄용)와 열전지(유도미사일용)는 이스라엘-인도-터키 중심으로 수출 성장세 지속되고 있음

북미 석유가스 시추 인프라 확대에 따른 고온전지 수요 증가

미국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 이후 석유·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추 장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고온전지 시장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비츠로셀은 PHX Energy Services(캐나다), Baker Hughes(미국), Halliburton(미국), Schlumberger(미국) 등 글로벌 석유·가스 시추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음. 고온전지는 동사의 일차전지 제품군 중에서도 높은 내열성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이익 기여도가 특히 높은 편. 2025년 고온전지 매출액은 388억원(+18.4% YoY)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바빈전지, 유럽 스마트 미터기에서 북미 전력 인프라까지

바빈전지는 수도 및 가스용 스마트 미터기에 사용되는 일차전지로 비츠로셀의 핵심 캐시카우임. Xylem, Sensus, Badger Meter 등 글로벌 상수도·가스 계량기 제조사를 통해 유럽 스마트 미터기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음. 최근 북미에서의 스마트 그리드 확산에 따라 전력선 및 변압기 센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바빈전지는 해당 전원의 역할로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 북미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는 바빈전지의 수요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안정적인 성장세에 추가적인 성장세가 더해질 가능성도 열려 있음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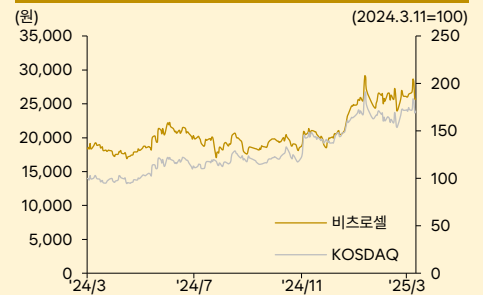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억원)	1,132	1,410	1,762	2,108	2,402
YoY(%)	01	24.5	25.0	19.6	13.9
영업이익(억원)	174	288	377	519	547
OP 마진(%)	15.4	20.4	21.4	24.6	22.8
지배주주순이익(억원)	170	231	361	513	522
EPS(원)	790	1,073	1,638	2,253	2,282
YoY(%)	20.5	35.8	52.7	37.5	1.3
PER(배)	18.2	11.9	9.9	9.4	11.3
PSR(배)	2.7	1.9	2.0	2.3	2.5
EV/EBITDA(배)	9.4	5.7	5.6	5.0	6.1
PBR(배)	1.9	1.5	1.6	1.7	1.8
ROE(%)	10.6	13.1	17.3	19.9	17.2
배당수익률(%)	1.0	1.6	1.5	2.2	1.8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3/24)	25,900원
52주 최고가	29,150원
52주 최저가	16,880원
KOSDAQ (3/24)	720.22p
자본금	114억원
시가총액	5,924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23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14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37억원
외국인지분율	28.31%
주요주주	비츠로테크 외 7인 37.07%
	FIDELITY MANAGEMENT & RESEARCH COMPANY LLC 외 14인 9.99%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0	40.4	37.4
상대주가	8.4	49.6	72.5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EPS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영업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재고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리튬일차전지 제조 업체

국내 리튬일차전지 1위 기업

비츠로셀은 국내 리튬일차전지 시장 점유율 85% 이상 확보한 1위 기업이다. 비츠로셀은 1987년 설립되어 1988년 미국 Greatbatch사와 기술제휴를 한 이후로 지금까지 리튬일차전지를 제조 및 개발하고 있다. 동사는 다양한 리튬일차전지 양산 설비 자체를 개발하며 전극 자동 코팅 설비와 자동 조립 설비를 구축해 공정 자동화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품질 경쟁력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비츠로셀은 2009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코스닥 라이징 스타에 선정되고 있다.

2024년 리튬일차전지 내 제품별

매출액 비중은 Bobbin 56.2%,

Wound 6.5%, 고온전지

15.5%, 기타 14.9% 구성

현재 전체 매출액의 80%가 수출을 통해 발생하며 40개 이상 국가와 거래 중이다. 주요 수출 지역은 북미와 유럽이다. 일차전지의 주요 전방 산업은 스마트 그리드(수소/가스 스마트 미터기), 방산, 석유화학, IoT 등으로 구성되며 2024년 전방 산업별 매출액 비중은 스마트 그리드 56%, 방산 24%, 석유화학 16%, 기타 4%로 구성된다.

리튬일차전지 경쟁사는 프랑스 SAFT, 이스라엘 Tadiran(SAFT의 자회사)이 대표적으로 비츠로셀과 함께 3개 업체가 글로벌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동사의 스마트 그리드 시장 내 리튬일차전지 점유율은 30% 수준으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비츠로셀은 핵심부품의 설계부터 개발, 생산, 완제품 제조의 모든 과정의 기술이 내재화되어 있다. 2024년 사업부문별 매출액 비중은 리튬일차전지 93.1%(-4.4%p YoY), 용역 0.2%(+0.1%p YoY), 상품(열전지 등) 6.0%(+4.4%p YoY), 운송 0.7%(-0.1%p YoY)이다. 리튬일차전지 제품 매출액 비중 93.1%는 바빈전지 56.2%, 와운드전지 6.5%, 고온전지 15.5%, 기타 제품(앰플전지 등) 14.9%로 구성된다. 전년 대비 비중 상승이 두드러진 사업은 상품과 기타 제품 실적으로 이는 방산용 수주 증가에 기인한다. 방산용 전원에 공급되는 앰플전지는 기타 제품군에 포함되며, 열전지의 경우 그룹사인 비츠로밀텍이 생산한 완제품을 해외 수출로 판매하고 있어 상품 매출로 집계되고 있다.

Bobbin Type은 동사의 주력 제품으로 계측기, 메모리 백업용 등에 사용되는 범용 전지로 수소 및 가스 스마트 미터기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며 동사의 캐시카우 역할이다. Wound Type은 군용으로 납품되는 전지로 출력이 큰 제품에 사용된다. 고온전지는 석유 시추장비 등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제품으로 ASP가 높아 동사의 제품군 중 이익 기여도가 가장 높은 편이다.

생산시설의 경우 기존 예산 지역에 3개 동으로 구성된 생산시설을 운영했으나 2017년 화재가 발생하며 기존 예산 공장 전체가 전소했다. 동사의 주요 원재료는 리튬을 포함한 화학물질로 특히 리튬의 경우 물이 닿으면 폭발해 화재 당시 진압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해당 사고 이후 비츠로셀은 약 900억원을 투자해 당진에 19개 동으로 구성된 신규 생산시설을 구축했다. 신규 공장은 기존 공장의 3배 규모로 완전자동화공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2024년말 기준 동사의 주주구성은 비트로테크 지분율 34.2%, 특수관계인 3.8%, Fidelity Management & Research 9.9%, SWEDBANK ROBUR GLOBAL EMERGING MARKETS 9.2%, 기타 41.1%이다. 연결 종속회사로는 Vitrocell USA(지분율 100%), 관계기업으로 MakeSens(지분율 46.6%)를 보유하고 있다. Vitrocell USA는 비트로셀의 미국 판매법인으로 고온전지를 북미 석유 및 가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2024년 Vitrocell USA은 매출액 227억원(+8.7% YoY), 순이익 3억원(+814.8% YoY)를 기록했다.

MakeSens는 캐나다 Calgary 대학 연구소에서 스펀포한 스타트업으로 나노소재 및 센서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리튬이차전지 소재 사업 진출을 위해 2021년 6월 MakeSens 지분을 인수했으며 실리온 음극재, 양극 CNT도전재 등 리튬이차전지용 첨가물을 개발 중이다. MakeSens는 매출 규모가 작아 당기손익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해당 업체의 실적은 동사의 지분법손익으로 반영하고 있다.

비트로셀의 연혁

1987~2004	2006~2015	2016~
1987.10 테크라프 설립-현 비트로셀 1988.05 기술도입(미국 Wilson Greatbatch사) 1990.04 국병조달본부 군납등록 1990.05 합덕공장 준공 1993.10 방위산업체 지정 1996.01 UL 제품인증 획득 1998.01 예산공장 준공 1998.08 ISO 9001 품질인증 획득 2000.05 O통합 및 비트로그를 선포 2001.10 ISO 9001:2000 인증 획득 2002.06 (주)테크라프에서 (주)비트로셀로 상호 변경 우량기술기업 선정(기술신용보증기금) 2004.0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중소기업청 2004.11 1,000만불 수출탑 수상 2005.05 우수제조기술 연구센터 선정 충청남도 경영안대회 경영대상 수상	2006.03 ISO 14001 환경인증 획득 2007.11 국방품질경영시스템 획득 2009.05 충남기업인 종합대상 수상 부품 소재기술개발자사업자 지정 2009.10 비트로셀코스닥시장 상장 2009.11 아시아-태평양지역 500대 고속성장 기업 선정 벤처기업대상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 2010.01 2,000만불 수출탑 수상 2010.11 NEP인증(고온전지) 획득(지식경제부) 2010.12 우수방산업체 방위사업장장상 수상 2012.05 월드클래스 300기업 선정(지식경제부) 2012.08 미국 EXLUM사(현 VITZROCELL USA Inc.) 인수 2012.10 2공장 준공 및 1공장 증축 2013.10 글로벌전문기업 선정(산업통상자원부) 2013.11 3천만불 수출탑 수상 2014.05 최우수공급업체상 수상(센서스) 2014.11 5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15.12 수출 유공자 대통령 표창 수상(행정자치부)	2016.09 비트로테크 지주회사 신규전환 및 자회사 편입 2018.04 비트로셀 스마트팩토리 준공 2019.05 한국거래소 벤처기업부 → 우량기업부 승격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서 획득 2019.12 7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20.04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 2020.08 Forbes 선정 아시아 100대 유망기업 2020.12 국방품질경영상 국무총리 표창 2021.06 Makesens 지분 인수 2021.08 (주)클래스파워 흡수합병 2021.06 2021년 코스닥 라이징스타 선정 2022.08 2022년 코스닥 라이징스타 선정 2023.07 2023년 코스닥 라이징스타 선정 2023.12 1억불 수출탑 수상 2024.08 2024년 코스닥 라이징스타 선정 2024.11 대한민국코스닥대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수상

자료: 비트로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력 제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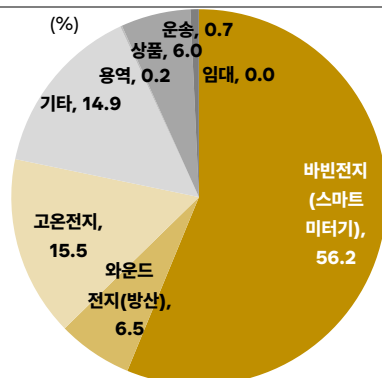
자료: 비츠로셀,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일차전지 적용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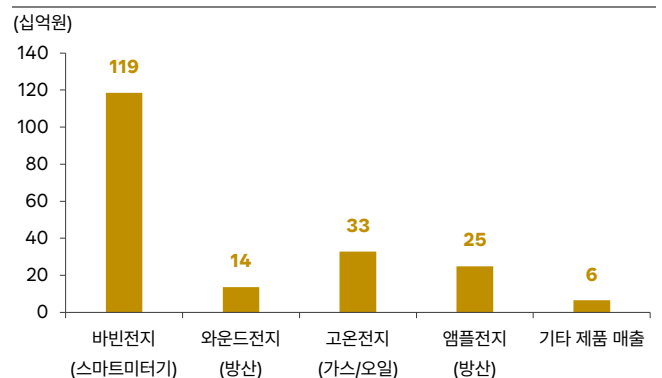
자료: 비츠로셀,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사업부문별 매출액 비중(2024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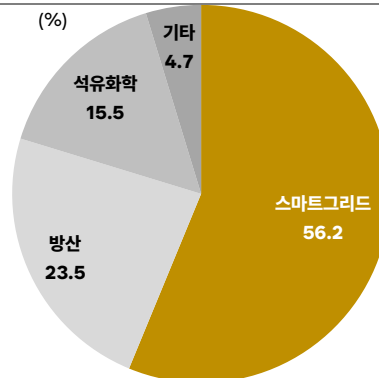
자료: 비츠로셀,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리튬일차전지 제품 매출액 구성(2024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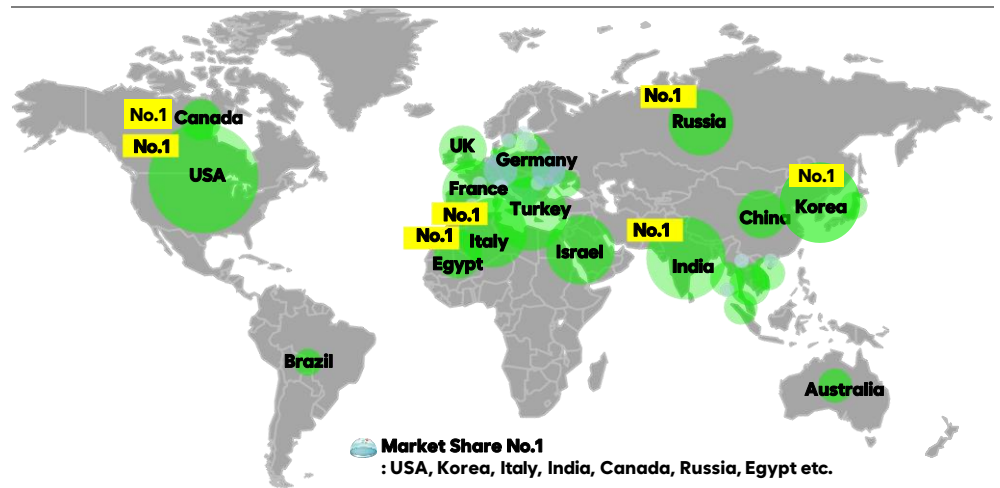
자료: 비츠로셀,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전방 산업별 매출 비중(2024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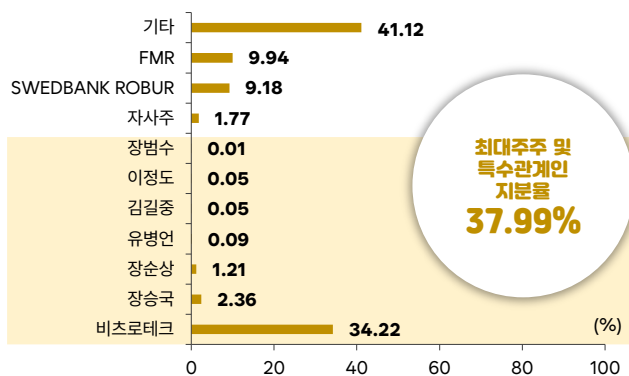
자료: 비츠로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수출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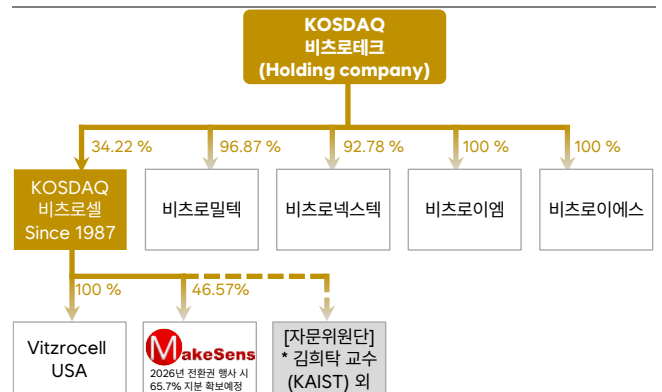
자료: 비츠로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주 구성(2024Y)



자료: 비츠로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비츠로 그룹 지배 구조



자료: 비츠로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리튬일차전지 산업 현황

**리튬일차전지는 고에너지밀도,
넓은 사용온도, 장기간 보존에
유리**

리튬일차전지는 충전이 불가능한 1차전지로, 한 번 사용 후 폐기되는 일회용 전지다. 대표적으로 리튬염화티오닐전지(Li/SOCl₂), 리튬망간전지(Li/MnO₂), 리튬이산화황전지(Li/SO₂) 등이 있으며, 기존의 망간전지나 알카라인전지 대비 압도적인 성능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리튬일차전지는 소형화에 유리하며, 높은 전지 전압(기본 3.0V 이상), 경량성, 장기간 저장 안정성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그 활용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QY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리튬일차전지 시장은 2021년 20억 5,206만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20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5.3%를 기록해 29억 4,574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미와 중국이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북미 시장은 약 4억 3,370만 달러, 중국은 약 4억 2,642만 달러 규모로 각각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21.1%, 20.7%를 차지하고 있다.

리튬일차전지는 전해질 및 양극재 종류에 따라 Li/SOCl₂, Li/MnO₂, Li/SO₂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Li/SOCl₂와 Li/MnO₂는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력 제품군이다. 특히 Li/SOCl₂는 에너지 밀도가 매우 높고 장기저장에 적합해 전락물자 및 스마트계측기용 전원으로서 수요가 크다.

리튬일차전지의 수요처는 군수용과 민간 산업용으로 양분된다. 군수용 전지의 경우 Li/SOCl₂ 전지는 군용 무전기, 어뢰, 첨단 유도무기, 폭탄 등 고신뢰성 전원이 필요한 장비에 사용된다. 이러한 비축형 전지는 발사 직전까지 에너지 손실 없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사 전력자산의 핵심 전력원으로 사용된다.

민간 분야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통신, 석유화학, IoT, 스마트팩토리 등 고부가가치 산업 전반에 걸쳐 리튬일차전지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 그리드 확산과 함께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지능형 계량 인프라) 등 계측기용 전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고온전지에 대한 수요가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및 시추장비용 스마트센서 시장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IoT와 센서기술이 결합되며 초소형 고에너지 전지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리튬일차전지는 경량성과 긴 수명으로 인해 배터리 교체가 어려운 장기형 IoT 디바이스의 전력공급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흐름은 스마트계측 및 에너지관리 시스템 시장의 확장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곧 리튬일차전지의 수요 확대에 직결되고 있다. 향후에도 산업 자동화, 원격 모니터링, 에너지 효율화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성능 리튬일차전지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주요 업체로는 프랑스의 Saft,
이스라엘의 Tadiran Batteries,
한국의 비츠로셀, 일본의 EVE
Energy 등이 대표적**

리튬일차전지 글로벌 Player

리튬일차전지 시장은 기술 집약적 특성을 갖는 고진입장벽 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은 소수의 전문 제조사들이 과점하고 있다. 주요 업체로는 프랑스의 Saft, 이스라엘의 Tadiran Batteries, 한국의 비츠로셀, 일본의 EVE Energy 등이 있으며, 이들 4개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70%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Saft와 Tadiran은 군수 및 항공우주 분야에서 강한 입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트로셀은 민수와 군수 부문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로 글로벌 Top 3에 진입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은 군수·산업용 고부가 제품 위주로 특화된 선진국 기업들과, 대량 생산 기반의 중국 로컬 기업들 간의 이중 경쟁 구도로 형성되고 있다. 중국은 EVE, Ultralife, Harbin Coslight 등의 업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기술을 축적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앞세워 특정 민수용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고에너지 밀도, 장기 보존성, 극한 환경 대응 등 고난도 제품에서는 여전히 선진국 중심의 기술 장벽이 유지되고 있다. 비트로셀은 Li/SOCl_2 및 Li/MnO_2 전지를 기반으로 군수 및 스마트 계측용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 그리드 및 IoT 확대에 따른 계측기 전지 수요 증가에 대응해 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전방 수요처별 리튬일차전지 전망

[군수/방산용] 리튬일차전지는 무전기, 어뢰, 미사일, 정찰용 드론 등 다양한 군용 장비의 핵심 전원으로 사용된다. Li/SOCl_2 전지는 고에너지 밀도, 낮은 자가방전률, 폭넓은 온도 대응력 등을 기반으로 군사 작전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 군수 장비의 특성상, 장기간 보관 후 즉시 작동이 가능해야 하므로 비축형 전지는 수년간 에너지 손실 없이 보존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배터리는 리튬일차전지가 사실상 유일하다.

미국, 유럽,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함께 국방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첨단 무기체계의 고도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기반의 정찰체계, 무인 전투 드론, 고기동 전자전 장비 등 차세대 무기 플랫폼이 빠르게 실전 배치되며 새로운 리튬일차전지의 수요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군사 장비는 전력 공급이 외부로부터 차단된 상황에서도 높은 신뢰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전지의 독립 작동성과 즉시 대응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신뢰성을 검증받은 주요 리튬일차전지 업체들이 방위산업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계측기용] 글로벌 에너지 고도화 정책과 탄소중립 기조 확산에 따라 스마트 그리드 인프라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스마트계량기(AMI) 및 IoT 기반 센서 네트워크 설치가 가속화되고 있다. 계측기기들은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측정·전송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수년간 지속적으로 작동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장기 전원 공급이 필수적이다. AMI 시스템은 외부 전력 연결이 제한적이거나 인프라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도 설치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배터리 교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환경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긴 수명과 고신뢰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Li/SOCl_2 전지가 최적의 솔루션으로 채택되고 있다. Li/SOCl_2 전지는 출력과 저출력 모드를 모두 지원할 수 있으며, 통신 주기와 데이터 송수신 빈도가 증가하는 최근의 트렌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스마트 그리드는 단순한 전력 계측을 넘어 실시간 에너지 관리, 수요 반응(DR), 분산형 전원 연계, 재생에너지 모니터링 등으로 기능이 확장되고 있어, 관련 센서 및 네트워크 장비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리튬일차전지의 활용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향후에는 스마트시티·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디지털 인프라로의 응용 확장도 기대된다.

[석유화학/산업용 IoT] 디지털 전환이 산업 전반에서 가속화됨에 따라 원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석유 시추장비, 플랜트 설비 등의 현장 계측기기 역시 빠르게 스마트화되고 있다. 이들 장비는 대개 외부 전력 공급이 어렵고,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위치에 설치되기 때문에 배터리에 의존한 장기간의 안정적 전원 공급이 필수적이다. 특히 석유 및 가스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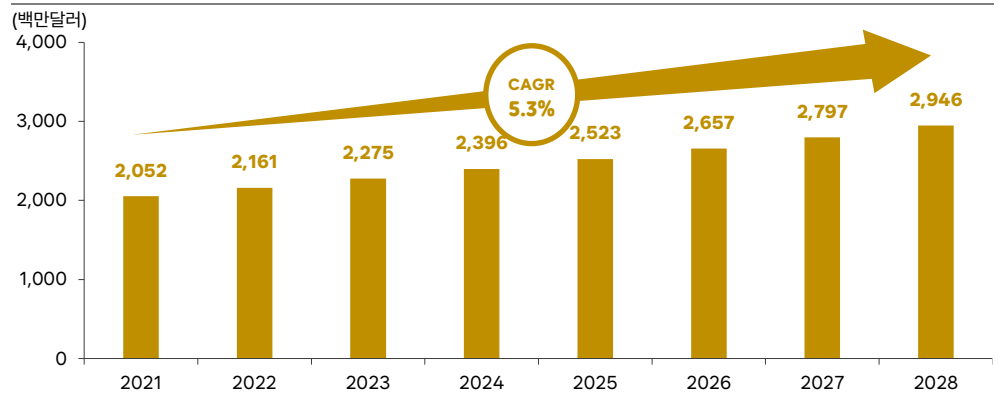
현장은 고온, 고압, 고습도 등 극한의 물리적 조건이 상존하는 환경으로, 일반 전지로는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리튬일차전지는 탁월한 내열성과 내구성, 장수명을 기반으로 고신뢰성 전원 솔루션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고온 환경에 최적화된 특수 설계의 Li/SOCl_2 전지는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스마트 계측기기에서는 수년간의 무정비 운용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자가방전률이 낮고 장기 저장이 가능한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활용되는 고온용 리튬일차전지의 글로벌 수요는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화, 안전성 확보, 효율성 제고 등 복합적인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한다. 향후에는 센서의 고기능화와 통신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전력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출력형 고온용 전지에 대한 수요도 함께 확대될 전망이다.

[항공우주, 해양] 특수 산업 영역에서도 리튬일차전지는 핵심 전력원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리튬일차전지 중에서도 Li/SOCl_2 와 Li/MnO_2 전지가 주로 사용된다. 항공기의 블랙박스(FDR·CVR)는 비행 중 수집된 비행 정보 및 음성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로, 항공 사고 시 결정적인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핵심 시스템이다. 블랙박스는 높은 고도와 급격한 온도 변화, 충격 및 진동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해야 하며, 전력 차단 시에도 자동으로 작동되는 독립 전원 공급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고에너지 밀도, 넓은 작동 온도 범위, 높은 내충격성을 갖춘 리튬일차전지가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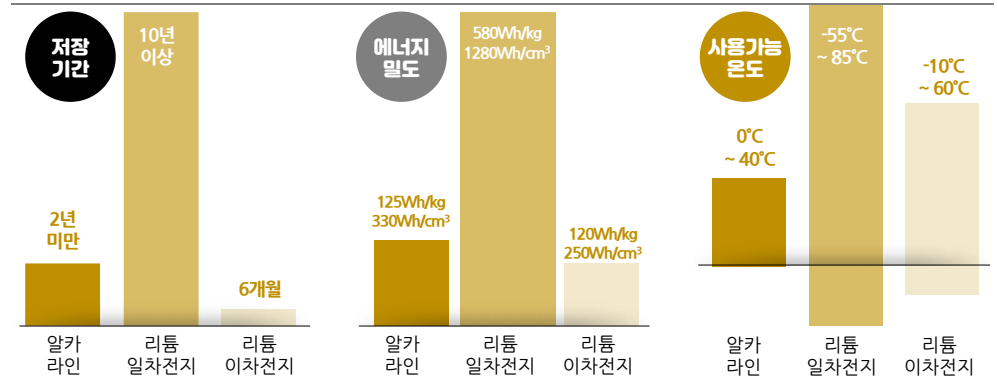
해양 분야에서는 심해 탐사장비, 해양 센서, 수중 드론(AUV·ROV) 등의 전원으로 리튬일차전지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수백 미터 이상 깊은 수심에서는 고압과 저온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전지 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시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배터리 기술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Li/SOCl_2 전지는 긴 수명, 낮은 자가방전률, 극저온 대응 특성으로 인해 해양 탐사 장비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글로벌 리튬일차전지 시장 규모 전망



자료: QYResearch,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리튬일차전지의 성능 및 특징



자료: 비츠로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1 K-방산 글로벌화 + 무기 체계 전자화 → 방산용 일차전지 수혜 지속

방산용 일차전지 합산 매출액은
2023년 264억원에서
2024년 495억원,
2025년 634억원으로
증가할 전망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국방 예산을 증대하고 방산 인프라를 확장하는 가운데 K-방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용 전지를 제조 및 공급하는 비츠로셀의 수혜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방산용 일차전지(와운드 전지, 앰플/열전지)는 실적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비츠로셀의 방산용 일차전지 매출액은 2023년 264억원에서 2024년 495억원, 2025년 634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2025년 전체 매출액의 2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파른 성장세는 글로벌 방산 시장의 확대와 함께 동사의 제품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츠로셀은 군용 일차전지 기술을 바탕으로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며, 글로벌 방산 인프라 확장과 무기 체계 전자화에 따른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다.

비츠로셀의 방산용 일차전지는 크게 와운드 타입 전지, 앰플전지, 열전지로 구분된다. 와운드 타입 전지는 군수용 무전기 등에 주로 공급되며, 내수 시장 중심으로 연매출 13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앰플전지와 열전지가 실적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제품으로 2023년 앰플 및 열전지의 합산 매출액은 134억원에서 2024년 359억원으로 고성성장했으며 2025년 489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K-방산의 글로벌화와 군사 무기의 전자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신뢰성, 긴 저장 수명, 내열성, 경량화와 높은 에너지밀도에 특화된 일차전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전식 배터리는 장기간 보관 시 방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일차전지는 낮은 방전율과 뛰어난 내열·내한성으로 무기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다. 일차전지는 유도 미사일, 스마트 탄약, 아전 전자 장비, 어뢰 및 수중 무기 등에서 필수적인 전력 공급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앰플전지는 크게 초소형 앰플전지와 중형 앰플전지로 구분된다. 초소형 앰플전지는 국내 방산업체에 공급되며, 중형 앰플전지 및 열전지는 인도, 이스라엘, 터키 등 해외 시장에 수출된다. 초소형 앰플전지는 천무(K-MLRS) 유도탄 및 무유도탄 전원으로 공급되고, 중형 앰플전지는 포탄용 전원으로 사용된다. 열전지는 유도 미사일의 추적 시스템(탐색기, GPS, 레이더 등)에 고출력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로 동사는 그룹사인 비츠로밀텍의 완제품을 받아 해외 방산업체 및 국방기관에 수출하고 있다. 방산용 일차전지의 주요 수출 국가는 이스라엘, 인도, 터키 등 유럽 지역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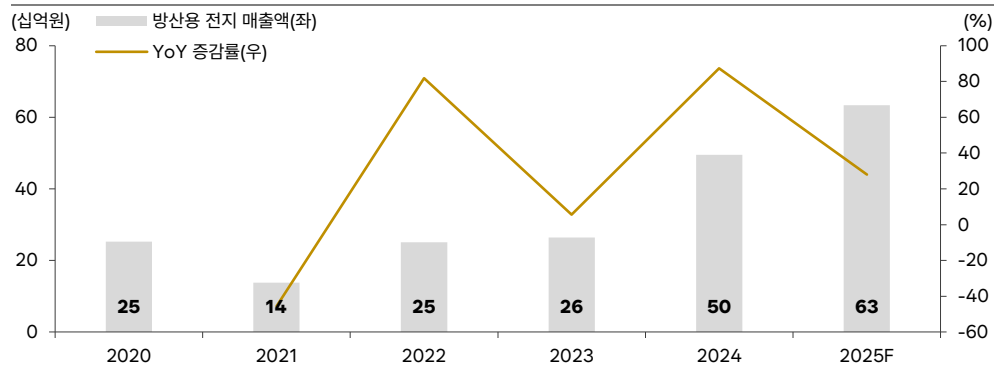
천무(K-MLRS) 및 무유도탄 시장 확대

천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MLRS)으로, 유도탄과 무유도탄 모두 운용 가능하다. 기존에는 유도탄에만 비츠로셀의 앰플전지가 적용되었으나, 2024년부터 무유도탄에도 초소형 앰플전지가 공급되면서 추가적인 매출 성장이 더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무유도탄은 불발탄 관리 기능이 거의 없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을 계기로 UXO(Unexploded Ordnance, 불발탄 관리)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며 UN과 NATO 등의 국제기구의 규제가 강화하고 있다. 한국도 불발탄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부터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무유도탄 개량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동사의 일차전지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열전지 시장의 고성장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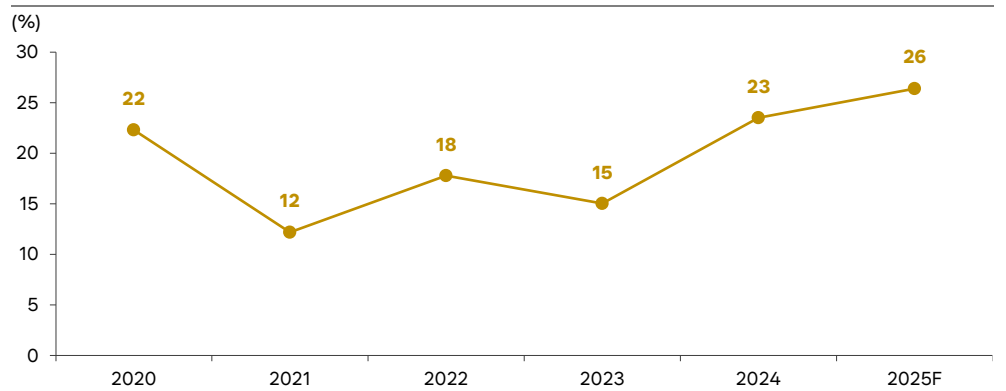
열전지는 군사 무기 시스템에서 단시간 동안 강력한 전력을 공급하는 특수 배터리로, 유도 미사일의 추적 시스템이 원할히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동사는 그룹사인 비츠로밀텍에서 제조한 열전지를 해외 방산업체 및 국방기관에 직수출하고 있으며, 글로벌 국방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매출액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 2023년 열전지 매출액은 20~30억원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100억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한다.

방산용 전지(애플전지, 열전지, 와운드 타입 전지) 합산 매출액 추이 및 YoY 증감률



자료: 비츠로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전체 매출액 중 방산용 전지 비중 추이 및 전망



자료: 비츠로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북미 석유·가스 시추 인프라 확대에 따른 고온전지 수요 증가

2025년 고온전지 매출액
388억원(+18.4% YoY)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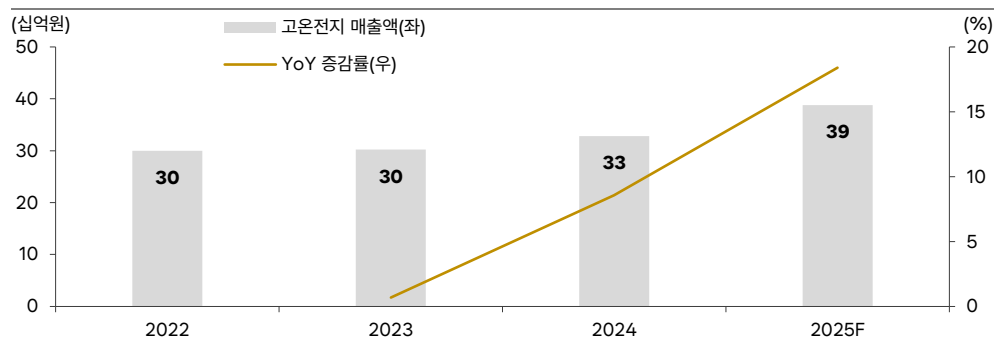
비츠로셀의 고온전지 사업이 북미를 중심으로 한 오일·가스 시추 시장의 구조적 성장에 힘입어 지속적인 수혜를 기대할 만하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화와 함께 고온전지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트럼프 2.0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시장 확대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한 이후 연방 토지 및 해양 시추 규제를 완화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확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내 석유·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며 시추 장비에 사용되는 고온전지 시장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비츠로셀의 2025년 고온전지 매출액은 388억원(+18.4% YoY)을 기록할 전망이다. 고온전지는 동사의 일차전지 제품군 중에서도 높은 내열성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을 갖춘 고부가 제품으로, 이익 기여도가 크다. 특히, MWD(Measurement While Drilling) 시스템은 시추 과정에서 깊이, 압력, 온도, 방향, 지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필수 장비로, 시추관 내부 150~200°C 이상의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고온전지는 내열성과 신뢰성에 특화된 일차전지로 MWD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다.

비츠로셀은 글로벌 석유·가스 시추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으며, PHX Energy Services(캐나다), Baker Hughes(미국), Halliburton(미국), Schlumberger(미국) 등이 대표적이다. 동사는 고객사의 요구에 맞춰 기존 고온전지 대비 용량을 대폭 확대한 'FAT D-HR'을 개발했으며, 2025년부터 PHX Energy Services의 계속 시추 장비에 해당 신제품이 본격적으로 탑재될 예정이다. 고온전지는 동사의 다른 일차전지 대비 이익 기여도가 높은 고마진 제품으로, FAT D-HR의 성과에 따라 제품 Mix 개선 효과도 기대해볼 만하다.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확대와 중동 및 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해 석유·가스 시추 인프라의 확장이 불가피한 가운데, 시추 효율성과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MWD(Measurement While Drilling) 및 LWD(Logging While Drilling) 장비의 채택이 확대되면서 고온전지 수요 역시 동반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비츠로셀은 고온전지 기술력 그리고 글로벌 고객사들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미국 및 글로벌 시추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확장, 신제품 효과가 맞물리면서 고온전지 사업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고온전지 매출액 및 YoY 증감률 전망



자료: 비츠로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고객사는 Xylem, Sensus,
Badger Meter 등

바빈전지, 유럽 스마트 미터기에서 북미 전력 인프라까지

스마트 미터기(전기, 가스, 수도)용 바빈전지(Bobbin Cell)는 동사의 캐시카우로 글로벌 스마트 미터기 시장 내 점유율 (30% 내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스마트 미터기 전원으로 공급되고 있는 바빈전지 매출액은 2023년 팬데믹으로 지연되었던 수요가 집중되며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 Pent-Up 수요로 인한 증가 효과 이후에도 스마트 미터기가 유럽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 구축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며 매년 1,000억원 초반의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 스마트 미터기는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장치로, 일반적으로는 외부 전력(AC)을 통해 작동하지만 정전 발생 시에도 계량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백업 전원이 요구된다. 따라서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바빈전지가 스마트 미터기의 전원 솔루션으로 채택되고 있다. 글로벌 스마트 미터기용 전지를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는 비츠로셀과 SAFT(프랑스), Electrochem(미국), Hitachi Maxell(일본), Toshiba(일본) 등이 있다. 비츠로셀은 Xylem, Sensus, Badger Meter 등 글로벌 상수도·가스 계량기 제조사를 핵심 고객사로 보유했다.

북미 전력 인프라 확장에 따른 추가 성장 모멘텀

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미국 스마트 그리드 시장은 2024년 738억 달러에서 연평균 16.9% 성장해 2029년에는 1,611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기존 글로벌 평균 성장률인 10%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력 공급 가격 인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 그리드 인프라 구축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노후 전력망을 디지털 기반 차세대 인프라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으며, 전력선 및 변압기 센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 그리드 내에서 지능형 배전망 관리가 핵심인 가운데 변압기 센서는 온도·전압·전류·부하·절연 상태를 실시간 측정해 설비 진단과 이상 감지에 활용되며, 전력선 센서는 배전선의 전류·전압 흐름을 모니터링해 배전 자동화와 전력 품질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전력선 및 변압기 센서 수요 확대에 따라 해당 센서의 전력 공급원으로 사용되는 바빈전지의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비츠로셀의 바빈전지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수도 및 가스용 스마트 미터기 시장에서 가정/상업용 계량기를 중심으로 공급되며 성장해왔고, 최근에는 북미 전력 인프라 시장으로 적용 영역을 넓히고 있어 안정적인 실적 흐름에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더해질 가능성도 보유했다.



실적 추이 및 전망

2024년 최대 실적 기록

2024년 연간

매출액 2,108억원(+20% YoY),

영업이익 519억원(+38% YoY)

기록

2024년 4분기 매출액 702억원(+53.0% YoY), 영업이익 150억원(+133.8% YoY)을 기록했다. 사업부문별 매출액은 제품(일차전지) 615억원(+36.9% YoY), 용역 및 기타 87억원(+775.2% YoY)으로 전사업부 모두 가파른 외형성장을 달성했다. 동사의 캐시카우인 스마트 미터기용 바빈전지 매출액은 292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일차전지 중 매출 성장이 두드러진 제품은 와운드전지(방산_국방 무전기용), 고온전지(가스/오일 시추 기계), 유도무기용 앰플 및 열전지이다. 와운드전지 매출액은 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7.5% 증가했으며 고온전지 매출액은 119억원으로 전년 대비 +72.6% 증가했다. 앰플 및 열전지 매출액은 187억원으로 전년 대비 +179.1% 증가하며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2024년 4분기 호실적을 기반으로 2024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024년 연간 매출액은 2,108억원(+19.6% YoY), 영업이익은 519억원(+37.7% YoY)을 기록했다. 외형성장과 제품 Mix 개선에 힘입어 연간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전년 대비 3.2%p 상승한 24.6%를 기록하며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졌다. 2024년 전방 산업별 연간 매출액은 스마트 그리드(바빈전지) 1,185억원(+7.2% YoY), 방산(와운드전지, 앰플/열전지) 495억원(+87.2% YoY), 석유화학(고온전지) 328억원(+8.6% YoY), 기타 100억원(+10.1% YoY)으로 구성된다.

2025년에도 실적 모멘텀 지속

2025년 매출액

2,402억원(+13.9% YoY),

영업이익 547억원(+5.3% YoY)

전망

2025년 실적은 매출액 2,402억원(+13.9% YoY), 영업이익 547억원(+5.3% YoY)을 기록하며 견조한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전방 산업별 매출액은 스마트 그리드 1,283억원(+8.2% YoY), 방산 634억원(+28.0% YoY), 석유화학 388억원(+18.4% YoY), 기타 97억원(-2.7% YoY)으로 예상된다. 2025년 전체 매출액 기준 전방 산업별 비중은 방산향 매출이 26.4%로 전년 대비 2.9%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온전지 부문은 16.2%로 0.6%p 증가가 예상되며,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부문은 53.4%로 2.8%p 감소할 전망이다.

동사의 분기별 실적 흐름을 보면 1분기는 연중 비수기, 4분기는 최대 성수기이다. 2025년 1분기는 직전 분기 대비 실적 감소가 불가피하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동사의 매출액 중 약 80%가 수출로 구성되어 달러 기준으로 인식된다. 2025년 1분기 평균 환율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어, 안정적인 수출 물량 증가와 함께 환율 효과도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5년 1분기 예상 실적으로 매출액 445억원(+18.4% YoY), 영업이익 116억원(+14.5% YoY)을 추정한다.

연간 실적 테이블

(단위: 십억원, %)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	113.2	141.0	176.2	210.8	240.2
바빈전지(스마트 미터기)	72.2	78.4	110.5	118.5	128.3
와운드전지(방산)	12.2	14.7	13.0	13.6	14.5
고온전지(가스/오일)	0.0	30.0	30.2	32.8	38.8
앰플/열전지(방산)	1.6	10.3	13.4	35.9	48.9
기타	27.3	7.6	9.0	10.0	9.7
영업이익	17.4	28.8	37.7	51.9	54.7
영업이익률	15.4	20.4	21.4	24.6	22.8
당기순이익	17.0	23.1	36.1	51.3	52.2
당기순이익률	15.0	16.4	20.5	24.3	21.7
YoY					
매출액	0.1	24.5	25.0	19.6	13.9
영업이익	-4.0	65.5	30.8	37.7	5.3
당기순이익	20.5	35.8	56.0	42.2	1.8

자료: 비츠로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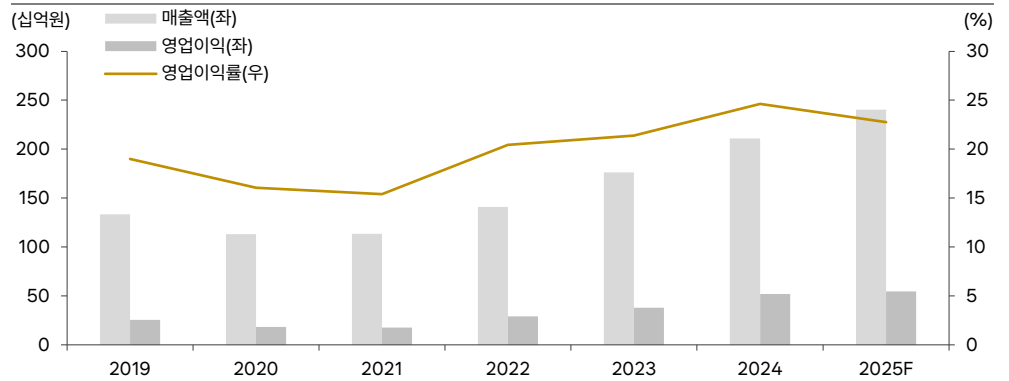
분기 실적 테이블

(단위: 십억원, %)

	1Q23	2Q23	3Q23	4Q23	1Q24	2Q24	3Q24	4Q24	1Q25F
매출액	36.4	49.8	44.1	45.9	37.6	54.2	48.8	70.2	44.5
영업이익	8.8	15.3	7.2	6.4	10.1	14.7	12.1	15.0	11.6
영업이익률	24.1	30.6	16.4	14.0	26.9	27.1	24.8	21.4	26.0
당기순이익	8.7	17.2	7.4	2.7	12.0	12.6	8.1	18.6	12.5
당기순이익률	24.0	34.6	16.7	6.0	31.8	23.2	16.7	26.4	28.0
YoY									
매출액	69.1	49.7	29.3	-11.8	3.2	8.7	10.7	53.0	18.4
영업이익	165.1	177.6	-19.5	-41.8	15.3	-3.9	67.5	133.8	14.5
당기순이익	130.5	139.9	-34.6	211.0	37.2	-26.9	10.5	575.6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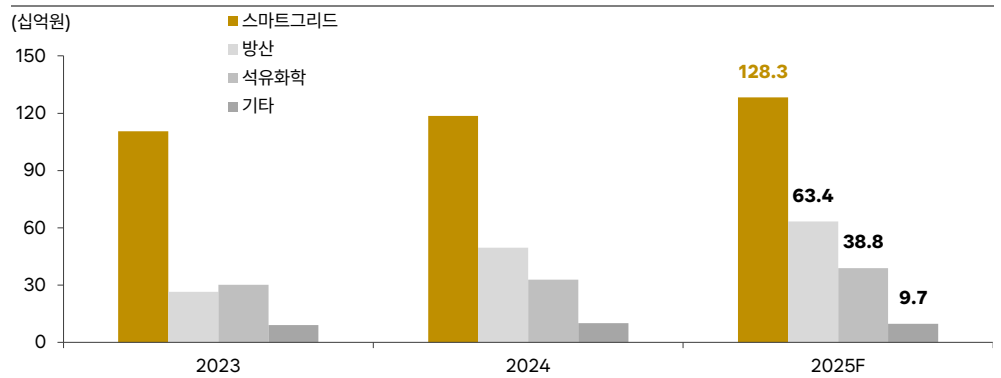
자료: 비츠로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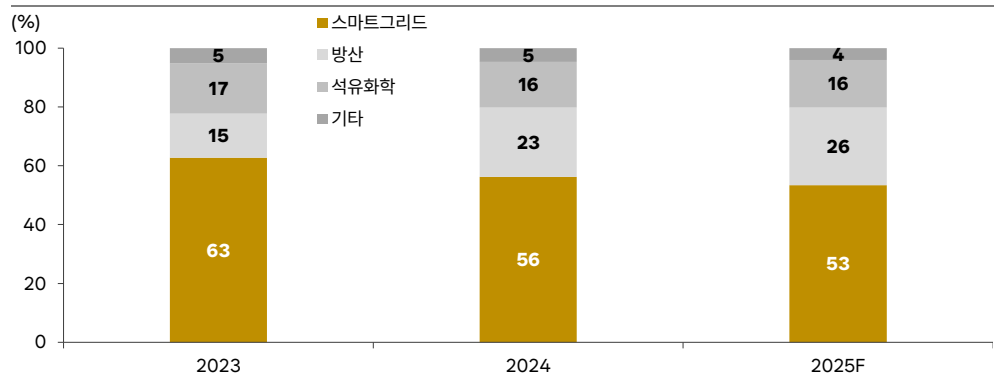
자료: 비츠로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전방 산업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비츠로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전체 매출액 대비 전방 산업별 비중 추이



자료: 비츠로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2025F PER 11.3배에서 거래 중

2025년에도

실적 모멘텀 지속될 전망

동사의 현재 주가는 2025년 예상 EPS 기준 PER 11.3배에서 거래되며 코스닥 평균 PER 21.9배 보다 할인되어 있다. 과거 3년간 동사의 평균 12MF PER이 9배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평균 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 다만, 국내 상장사 가운데 동종 산업인 일차전지 분야에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Peer 기업이 부재하여 상대적 밸류에이션 분석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주가의 펀더멘털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는 실적의 지속 가능성이다. 비츠로셀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강한 성장 흐름을 이어왔다. 이러한 성과는 북미 지역의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일차전지 수요 증가, 그리고 유럽 스마트 그리드향 수출의 점진적인 회복세가 동시에 작용한 덕분이다. 특히 스마트 그리드 시장은 구조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산업으로, 동사는 해당 시장 내 일차전지 글로벌 일차전지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어 향후에도 안정적인 외형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2025년에도 동사의 실적 모멘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스마트 그리드용 일차전지 매출액은 올해에도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전망이며, 나아가 방산 부문에서의 수요 확대와 북미 지역 석유·가스용 일차전지 수주 증가가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방산용 앰플전지와 석유·가스용 고온전지는 진입 장벽이 높은 고부가 제품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계절적 특성상 1분기는 연중 가장 낮은 실적 기여도를 보이는 비수기이며, 상반기 실적은 하반기 대비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현재 밸류에이션이 과거 평균 수준에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상반기에는 주가의 상승 탄력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 중심의 실적 모멘텀이 강화되고, 특히 북미 전력 인프라 투자 및 방산 프로젝트 집행이 집중되는 시기임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는 실적 기대감과 함께 주가 상승세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동사에 대한 투자심리는 상반기보다 하반기 더욱 개선될 것으로 판단한다.

12MF PER Band



자료: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12MF PBR Band



자료: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비츠로셀의 주가 추이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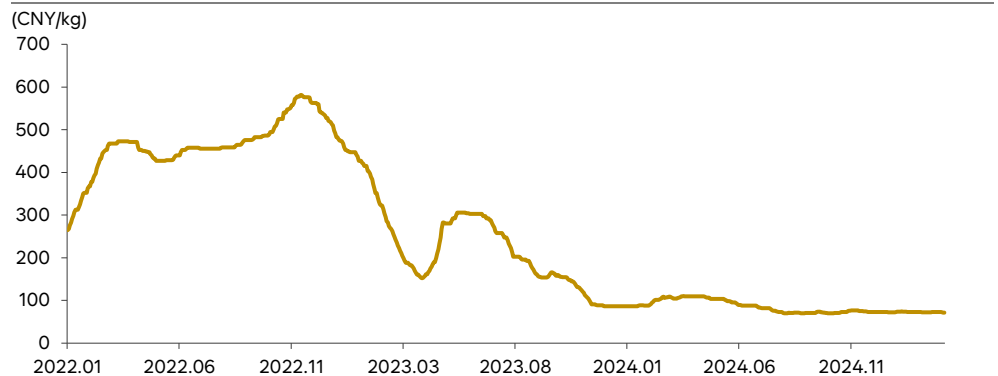
리스크 요인

원재료 리튬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성 리스크

비츠로셀이 제조하는 일차전지는 리튬을 핵심 원재료로 사용한다. 따라서 글로벌 리튬 가격의 변동은 동사의 제조원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리튬 가격은 하향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단기일내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 광물자원 민족주의, 특정 국가의 수출 제한 및 공급 규제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높은 원자재 중 하나로 분류된다. 실제로 2021~2022년에는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과 전기차 수요 급증이 동시에 발생하며, 리튬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한 바 있다. 향후 유사한 공급 충격 또는 수요 급증이 재차 발생할 경우, 리튬 가격이 다시 급등하면서 동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비츠로셀은 일반적으로 2~3개월치 원재료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단기적인 가격 급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리튬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제품 가격에 원가 상승분을 전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수익성 축소는 불가피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공공 인프라 및 방산 등 고정 납품 단가의 고객 비중이 높은 사업 특성상, 원재료 비용 상승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따라서 글로벌 리튬 가격의 중장기 흐름과 공급망 관련 이슈는 동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향후 동향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리튬 가격 추이



자료: Komis,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	1,132	1,410	1,762	2,108	2,402
증가율(%)	0.1	24.5	25.0	19.6	13.9
매출원가	800	994	1,242	1,403	1,645
매출원가율(%)	70.7	70.5	70.5	66.6	68.5
매출총이익	332	416	520	705	757
매출이익률(%)	29.3	29.5	29.5	33.4	31.5
판매관리비	158	128	143	186	210
판매비율(%)	14.0	9.1	8.1	8.8	8.7
EBITDA	278	396	488	661	688
EBITDA 이익률(%)	24.6	28.1	27.7	31.4	28.6
증가율(%)	-0.3	42.3	23.4	35.4	4.1
영업이익	174	288	377	519	547
영업이익률(%)	15.4	20.4	21.4	24.6	22.8
증가율(%)	-4.0	65.5	30.8	37.7	5.3
영업외손익	27	-1	64	129	115
금융수익	17	49	88	101	100
금융비용	14	56	35	31	30
기타영업외손익	24	6	12	59	45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2	-1	-3	-5
세전계속사업이익	201	285	440	645	657
증가율(%)	24.2	42.2	54.4	46.5	1.8
법인세비용	30	54	80	132	135
계속사업이익	170	231	361	513	522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170	231	361	513	522
당기순이익률(%)	15.0	16.4	20.5	24.3	21.7
증가율(%)	20.5	35.8	56.0	42.2	1.8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170	231	361	513	522

현금흐름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52	265	388	598	369
당기순이익	170	231	361	513	522
유형자산 상각비	95	99	102	133	131
무형자산 상각비	9	8	9	9	10
외환손익	0	4	12	1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62	-136	-114	-93	-253
기타	40	59	18	35	-4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85	78	-408	-617	-132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7	0	0	0	-29
유형자산의 감소	0	22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97	-50	-100	-41	-70
기타	-281	106	-308	-576	-3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61	-62	-81	-58	-103
차입금의 증가(감소)	-3	-2	-7	-1	0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26	-32	-42	-55	-103
기타	-32	-28	-32	-2	0
기타현금흐름	1	1	-9	1	0
현금의증가(감소)	-195	281	-110	-76	134
기초현금	379	184	466	356	280
기말현금	184	466	356	280	414

재무상태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유동자산	1,176	1,453	1,703	2,377	2,717
현금성자산	184	466	356	280	410
단기투자자산	473	288	644	1,238	1,300
매출채권	183	218	259	353	387
재고자산	313	437	403	461	550
기타유동자산	24	45	41	44	70
비유동자산	886	919	860	802	772
유형자산	801	728	716	636	575
무형자산	49	46	40	33	33
투자자산	9	121	87	121	152
기타비유동자산	27	24	17	12	12
자산총계	2,062	2,372	2,563	3,179	3,489
유동부채	355	491	224	328	221
단기차입금	5	5	1	2	2
매입채무	46	121	51	105	80
기타유동부채	304	365	172	221	139
비유동부채	40	24	22	20	23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0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40	24	22	20	23
부채총계	395	515	245	348	244
지배주주지분	1,667	1,857	2,317	2,830	3,249
자본금	108	108	113	114	114
자본잉여금	193	193	352	395	395
자본조정 등	-35	-51	-70	-61	-61
기타포괄이익누계액	-4	-3	-2	1	1
이익잉여금	1,405	1,611	1,925	2,380	2,799
자본총계	1,667	1,857	2,317	2,830	3,249

주요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2025F
P/E(배)	18.2	11.9	9.9	9.4	11.3
P/B(배)	1.9	1.5	1.6	1.7	1.8
P/S(배)	2.7	1.9	2.0	2.3	2.4
EV/EBITDA(배)	9.4	5.7	5.6	5.0	6.1
배당수익률(%)	1.0	1.6	1.5	2.2	1.8
EPS(원)	790	1,073	1,638	2,253	2,282
BPS(원)	7,741	8,622	10,252	12,374	14,204
SPS(원)	5,258	6,545	8,008	9,263	10,500
DPS(원)	150	200	250	460	460
수익성(%)					
ROE	10.6	13.1	17.3	19.9	17.2
ROA	8.6	10.4	14.6	17.9	15.7
ROIC	12.1	19.3	25.1	33.6	33.2
안정성(%)					
유동비율	331.2	295.9	761.7	724.0	1,230.1
부채비율	23.7	27.7	10.6	12.3	7.5
순차입금비율	-27.9	-27.5	-41.2	-53.4	-52.4
이자보상배율	13.7	36.1	63.4	265.3	1,108.8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6	0.6	0.7	0.7	0.7
매출채권회전율	7.1	7.0	7.4	6.9	6.5
재고자산회전율	3.9	3.8	4.2	4.9	4.8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 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비츠로셀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5.03.26	비츠로셀-일차전지, 방산·에너지·전력 인프라의 필수재
2023.09.15	비츠로셀-스마트 그리드 수혜주.2023F 매출액YoY+42%영업이익 YoY+73% 전망
2022.11.17	비츠로셀-리튬일차전지 최강자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 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항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항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소중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소중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